

나주시 25억 들여 드라마 유치 논란

〈KBS 바람의 나라〉

‘삼한지 테마파크’ 세트장 리모델링 지원 협약 이미 중서 일부 촬영...사업성·홍보 효과 떨어져

나주시가 최근 삼한지 테마파크에 방송국 드라마 촬영을 유치하면서 25억원을 지원키로 협약을 체결해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시는 MBC ‘주몽’ 드라마 종방후 방치되고 있는 삼한지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 KBS와 ‘바람의 나라’를 촬영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KBS측에 세트장 리모델링 비용 등 2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36부작인 ‘바람의 나라’는 오는 9월 방영 예정으로 이미 중국 등지에서 10여회분 이상 촬영

을 마친 상태다. 이 때문에 나주 삼한지세트장에서의 촬영 분량이 줄어들게돼 효율성이 낮은 ‘물자 및 투자’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9월 10일 방영이 시작돼 내년 1월경 종방되는 드라마인 만큼 공기가 짧아 25억원이 집행되는 리모델링 공사가 종속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A모(49·방송인)씨는 “드라마 촬영 유치는 수익성이나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며 “나주세트장이 방송에 노출되는 빈도가 적은 만큼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드라마의 경우 나주세트장에서 60~70%를 촬영하기로 협약서에 명시돼 있다”며 “25억원의 제작지출비가 대부분 현재의 세트장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투자되는 만큼 삼한지 세트장이 새롭게 단장될 것이다”고 밝혔다.

‘바람의 나라’는 고구려 초기 고구려왕 ‘무휼’과 부여공주 ‘연’의 사랑과 갈등, 전쟁 등을 담은 드라마다.

한편 이번 KBS와의 협정을 체결을 앞두고 지난 달 SBS측도 삼한지 테마파크에서 내년 2월 방영 예정인 50부작 ‘자백고’ 드라마에 대한 제작지원을 요청했으나 나주시는 KBS ‘바람의 나라’를 최종 선정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민어는 대풍...낙지는 흥어

민어, 어획량 급증 kg당 2만원으로 가격 하락 낙지, 산란철 불규칙 잡혀 식당들 '개점 휴업'

“민어는 ‘대풍’인데 낙지는 ‘흥어..”

신안과 무안지역 어민들의 회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서해 민어잡이는 요즘 대풍을 이루고 있다. 신안군수협 북부지점에 따르면 최근 송도위판장에서는 하루에 6~7톤의 민어가 위판될 정도로 ‘민어 대풍’을 기록하고 있다.

민어가 많이 잡히고 있는 것은 적당할 수온이 유지되고 있는데다 임자와 자은도 해역에 먹잇감이 풍부해진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 때 어획부진으로 1kg에 4만5

천원까지 치솟았던 민어는 어획량이 급증하면서 상품이 2만원 안팎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민어 주문이 쇠하고 있다.

수협 북부지점 관계자는 “민어는 여름철 최고의 보신 식품으로, 다음달까지 민어 대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낙지 주산지인 신안과 무안해역에서는 낙지가 잡히지 않아 어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낙지잡이 어민 김영환(65·신안군)씨는 “요즘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낙지 3~4마리를 잡을까 말까 할 정도로 낙지 구경을 하기 어렵

다”며 “지금도 산란철인 데다 절기도 늦어지면서 유통하는 유난히 낙지가 잡히질 않는다”고 울상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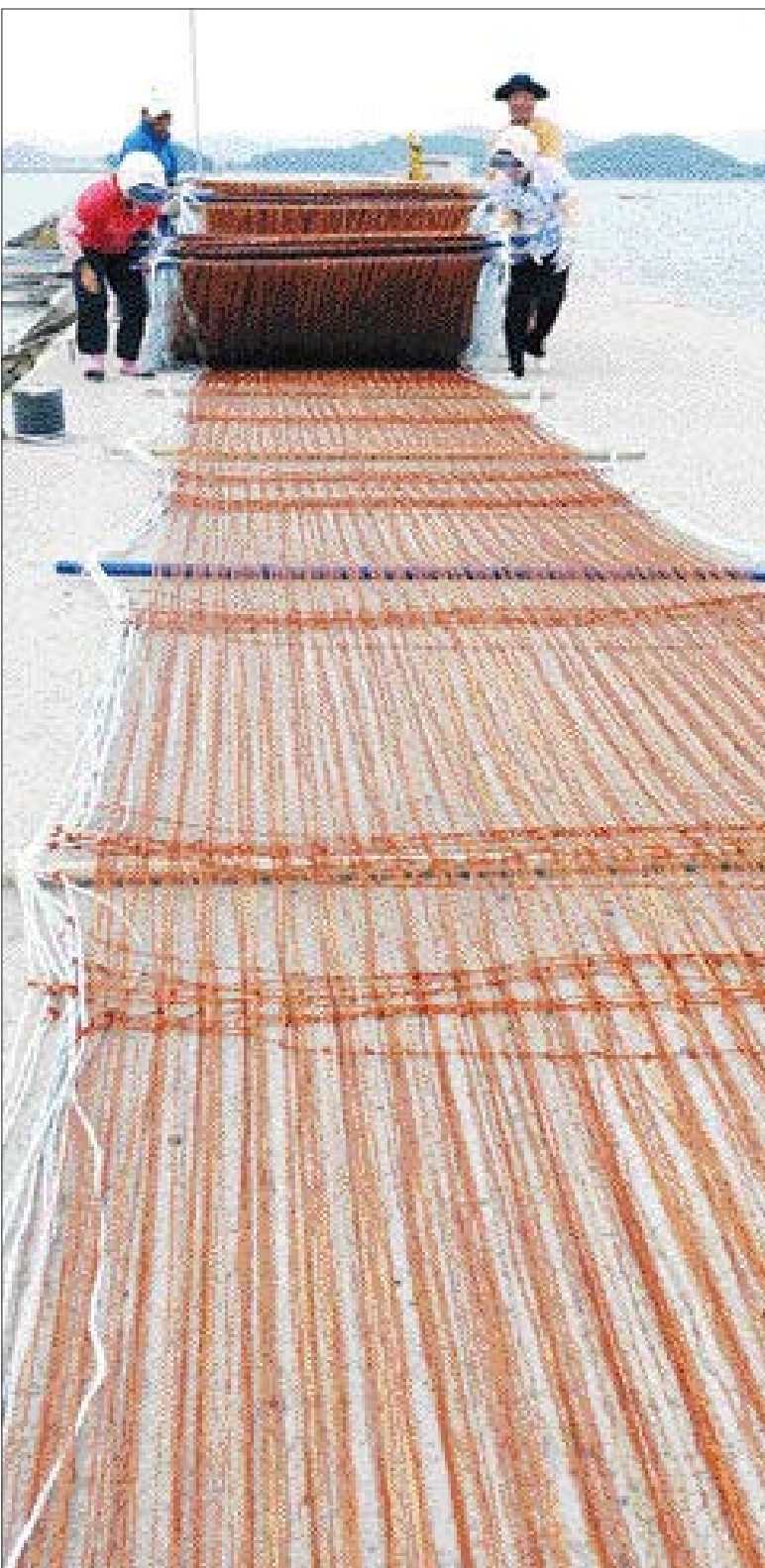
낙지 주산단지인 무안 청계면 어민들은 예년에 한번 나가면 3~4점(1점은 20마리)은 거뜰히 잡았는데 올해는 1점을 채우기도 벅까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어른 손가락만 한 세 발낙지 한 마리가 1만~2만원에 팔릴 정도로 가격이 폭등했고 낙지 전문 식당은 낙지를 구하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다.

남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낙지가 줄어든 것은 마구잡이 남획으로 씨가 말라가고 있고 갯벌이 훼손되면서 서식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무안=대성수기자 dss@

‘김발’ 제작 분주한 어민들



장흥군 회진면 신덕리 바닷가에서 어민들이 겨울 김양식에 사용할 김발을 제작하고 있다. 김발은 수온이 낮아지는 10월 초부터 바다에 설치된다. /위취량기자 jrwi@

“야생화타운, 특혜 아니다”

郡에서 토지 소유자에 참여 요청한 것

구례군 언론 보도 해명

구례군은 26일 야생화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두식 구례군 자원연구개발과장은 이날 “지리산 야생화타운은 국비 외에 자부담 5억~6억원과 연간 관리비 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며 “지난 2005년 구례군이 군내 유력인사 2명에게 사업 참여를 요청했으나 비용 부담 문제로 거부돼 토지 소유자에게 수차례 요청해 승낙을 얻어낸 경우”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야생화타운 조성은 군의회와 전남도·산림청의 승인을 받은 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

계획위원회의 정당한 자문절차를 거쳤으며 현재 사업이 추진중이므로 형질변경에 따른 지목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야생화타운 예정 부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국민은행 측에 문의해 야생화 타운을 조성해도 좋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야생화타운은 조성후 홍보를 위해 무료 개방할 계획이며 유료와 여부는 추후 협의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야생화타운은 화엄사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관광 구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조례 호수공원 내년말 완공

순천시 사업비 131억원 들여 산책로 등 생태공원으로 조성

순천시 조례 호수 공원이 내년말 완공된다.

조례호수공원은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 수질도 악화돼 시민들의 컴퓨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비 131억원을 들여 지난달 공

사에 착수한 조례호수공원은 저수지와 일야 17만㎡에 산책로 및 광장, 조경, 휴양시설은 물론 실개울과 어린이 정원, 수변 무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자연 지형을 이용한 조경 경관 기법을 도입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에 걸맞는 물과 숲,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된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목포 대성지구 11월부터 보상 착수

토지 804필지, 건물 418동

목포시가 오는 11월부터 대성지구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 보상작업에 착수한다.

목포시는 이달 중 감정평가업자 3개 업체를 선정해 토지 804필지, 건물 418동 등의 보상 물건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 11월부터 보상협의를 착수할 계획이다.

목포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6년 2월 협약을 체결해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 사업지구 내 보상물건에 대해 지난 4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했다.

목포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속칭 ‘피난민촌’인 대성동 일대 7만239㎡에 사업비 1천653억원을 투입해 분양 34평형 651세대, 임대 18~22평형 540세대 등 1천191세대를 2012년 12월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담양·영광 일반산단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남도는 26일 담양군과 영광군 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영리(두정리는 일부) 5.4km와 영광군 대마면 송죽·남산리 10.7km이며 지정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다.

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표되며 이때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도시지역 주거지역은 180㎡ 이하, 녹지지역 100㎡이하 등 소규모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재취재기자 chae@kwangju.co.kr

화순 오지 개발 본격 추진

화순군이 오지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화순군은 지역격차 해소와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44억5천여만원을 들여 한천면과 청풍·남·이서 등 4개 면에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벌일 계획

이다.

한천면의 경우 농로 및 농업용수로와 배수로, 마을 안길 등에 대한 정비사업, 청풍면은 청풍리 등 3개 마을터덕단지 진입로가 개설된다.

또 이서면은 뽕 가공제품 자문창고가 신축되고 남면에는 마을복지회관

한천·청풍·남·이서면 등에 소득·생산 기반시설 조성

이 건립된다.

이들 사업은 다음달 착수해 내년 4월 완공 예정이다.

화순군은 부실사업 예방을 위해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각종 공사에 대한 감사·감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남 칭찬하는 문화 만듭시다”

함평군 ‘글로벌 추임새운동’ 확산

연말까지 90회 걸쳐 군민 3천명 교육

함평군이 벌이고 있는 ‘글로벌 추임새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함평군 글로벌추임새운동 지도자협의회(회장 박광웅)는 지난 6일부터 군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군민교육은 23명의 글로벌 추임새 운동 강사가 면사무소,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생활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90회에 걸쳐 3천여 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한다.

지난 25일에는 주민 자치회 날을 맞아 송본면과 신광, 엄다, 대동, 나산, 월야 등 6개 면에서 이장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추임새 운동 강사들은 ‘함평사랑 공동체구현을 위하여’, ‘건강한 삶을 위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 ‘긍정적으로 사는 삶’, ‘충효사상’, ‘내가 변화야 세상이 변한다’ 등을 주제로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해 주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07년부터 함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추임새 운동’은 남을 돕는 대신 상대방을 높이고 배려해 성공하도록 돕는 범국민 정신문화 운동이다.

박광웅 함평군 글로벌추임새운동 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연말까지 교육이 완료되면 추임새 운동이 확산 정착되어 더불어 사는 훈훈한 자문 분위기를 조성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여수산단에 태양광 소재 공장 착공

한국실리콘, 年 2,500t 규모 폴리실리콘 생산

태양광산업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한국실리콘의 생산공장이 26일 여수국가산단에서 기공식을 갖고 생산시설 건설에 착수했다.

이날 기공식은 지난 4월 전남도와 한국실리콘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이상면 전남도 정부부지사와 윤순광 한국실리콘 사장, 공사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한국실리콘은 여수산단에 앞으로 2천500억원을 들여 고용인원 300여 명, 연간 2천500t 규모의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을 국내 세 번째로 세우게 된다.

한국실리콘은 지난 2월 오성엘에스티㈜ 58.33%, 신성이엔지㈜ 41.67%의 지분으로 설립된 회사로 단계적 증설을 통해 2011년까지 5천억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장하기로 했다.

또 2014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1천여명 고용, 연간 1만 생산, 연매출 7천5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산업의 핵심 소재로 연평균 15~20%의 급성장예상되고 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순천시-광주은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

순천시와 광주은행이 26일 ‘투자사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순천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순천시가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건설 및 ▲프로젝트 직접 금융 지원 및 필요 시 사업 자본 참여 ▲재원 조달에 관한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순천시에서 기업을 하고 싶어도 자금 확보가 어려워 발길을 돌린 많은 기업이 다시 돌아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해양공원에 60m 대형 인공폭포

체전 앞둔 여수시 4억 들여 ‘월 가든’ 조성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야외 공연장 앞에 인공폭포가 설치된다.



예정이다.

여수시는 3억8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10월 해양공원 내에 ‘월 가든’(Wall Garden)을 조성할 계획이다.

‘월 가든’은 높이 5m, 너비 60m, 500㎡ 규모의 인공 구조물 형태로 대형 폭포와 5색 점멸 조명 등이 설치된다. <조감도>

또 인조목 벤치와 파고라 등을 배치하고, 야간에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여수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여수시는 오는 10월 전국체전 개막식에 맞춰 월 가든을 완공할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현장 찾아 농업인 민원 해결

농협 나주시지부 ‘이동민원실’ 호평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지부장 나승운)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 해결을 위해 ‘농협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 시지부는 지난 21일 160여 명의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협 이동 상담실’을 개설, 전문가가 농촌현장을 직접 방문해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소비자 피해구제, 건강상담 등을 실시했다. <사진>

나승운 지부장은 “농업인들이 전문가와 마주하며 자신



에 맞는 상담을 하고 피해에 대해 대처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거의 없어 이동민원실을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